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     |                                                                                |    |  |
|-----|--------------------------------------------------------------------------------|----|--|
| 성명  | 이윤섭                                                                            | 학번 |  |
| 이메일 | <a href="mailto:Yoonsub.lucius.lee@gmail.com">Yoonsub.lucius.lee@gmail.com</a> |    |  |

|      |                                                   |
|------|---------------------------------------------------|
| 대학원명 | Georgetown 대학교 / Master of Policy Management (미국) |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귀국: 2021년 12월 30일]   |
| 첨부서류 |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2 년 1월 4일

신 청 인 : 이윤섭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Georgetown 대학교가 소재한 Washington D.C. 및 인근지역의 기후는 한국의 겨울보다는 온화하며 여름보다는 서늘합니다. 본인은 학교에서 도보로 20분 (1.1mi) 거리에 위치한 Rosslyn, Arlington, VA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Rosslyn 지역은 D.C. 지역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시화의 정도가 높아 도보 거리 (walking distance) 내에 주요 식료품점, 약국, 상점, 식당 및 기타 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인 커뮤니티 혹은 한인 마트 (H-Mart) 등은 인근에 없어 차로 20분 거리 (약 12mi)에 위치한 Annandale 지역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처음 도착하면 집 렌트, 휴대전화 개통, 은행계좌 개설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집은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online tour를 신청하고 Apartment를 렌트하였습니다. 일부 Apartment Management 회사는 Credit/Debit Card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계약한 Apartment는 카드도 받아서 계약이 수월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해서 나가려는 경우로서 미국에 처음 거주하는 경우에는 payment methods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은 매우 다양한 옵션이 있는 만큼 본인의 휴대전화 사용량과 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I-20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banker와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1년 (3학기) 중 총 27학점 (각 학기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과정은 Core Courses와 Elective Course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ore Courses에는 Economics, Program Evaluation (2022년 과정부터는 필수과정에서 제외), Comparative Policy Analysis, Public Management, Ethics, Research Methods, Capstone Project 로 구성됩니다. Elective Course는 원칙상 2과목 수강만 허용되나, 본인은 AMPP를 KDI School에서 수강하여 이를 근거로 Georgetown 대학교에서 미시경제이론을 면제받았습니다 (별도의 Exemption Test를 거칠 필요. 학교에 별도 신청 필요).

전반적인 수업의 Quality는 높으며, Elective Courses 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본인이 수강한 Elective Course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Strategic Advocacy: Lobbying and Interest groups,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의 교수님들은 모두 Adjunct Professors로 해당 분야의 국제기구/정부기관(백악관/USTR)에서 근무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측면도 설명하면서 미국 정치/행정제도에 대한 경험에 기초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필수과목의 개수가 많고 선택과목의 폭이 제한적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Core Courses도 일

부는 강의의 질이 높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2022년부터는 정책평가론이 Core Courses에서 제외됨에 따라 Elective Courses를 보다 많이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된 점으로 보입니다.

Core Courses 중 Exemption이 가능한 과목은 Economics, Research Methods 두 가지입니다. KDI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수학하였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들 과목 모두를 면제받고 Elective Courses에 Energy를 투입하는 것이 보다 만족도 높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수강신청은 일부 극히 인기있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수강 신청했던 과목이 인원 수 부족으로 폐강되어 다른 수업을 들어야할 일이 발생하였는데, 교수님께 메일로 상황을 설명하며 동 과목을 듣고 싶은 이유를 메일로 적어 요청 드렸더니, 추가로 수강 신청을 받아 주신 적도 있습니다 (Strategic Advocacy: Lobbying and Interest Groups).

Georgetown 대학교 MPM 과정의 특징은 여름학기에 Intensive방식의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주간 (월~토 09:00~16:30) A과목만을 듣고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후 1주일의 Break가 주어지고, 바로 다음 주에는 B과목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과목을 진행한 후에는 2주간의 Break가 주어지며, 이후 C 과목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합니다. 다른 MPM 학생들은 여름학기에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KDI GMP 제휴과정 학생들은 3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여름학기의 Intensive 방식이 1년간의 수학 중 가장 도전적인 요소였습니다. Reading 양이 방대하고 수시로 토론에 참여하여야 했던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ntensive 방식인 만큼 MPM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교에서 Friendly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지 학생들을 알게 된 점 역시 긍정적 측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Capstone Project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교수님 한 분이 KDI GMP 학생 (저의 경우에는 총 3명)을 지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Capstone은 개별 과제이며 주제는 교수님과 상의하여 첫 주에 결정하게 됩니다. 약 2~3주에 한번 교수님을 단체로 뵙고 각자의 주제와 진행 경과 및 애로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교수님의 comments를 듣는 구조입니다. 지정된 교수님께서 저희 3명의 학생이 각자 진행하고자 한 프로젝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관계로 일반론적 측면에서만 comments를 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동 과정에 있어서는 글을 쓰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짧은 시간안에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여름 학기의 Intensive Courses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Georgetown 대학교는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대학원생은 off-campus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off-campus housing list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옵션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Rosslyn 지역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지역 범위 내에서 Apartment를 검색하였습니다. 이후, Management Company가 미국 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곳들 (평가가 좋은 곳들)을 우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한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신축 (2013년)에 속하는 곳이었으며 시설이 깔끔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KDI GMP 파견 오신 다른 선생님과 한국에서 파견근무 나온 제 지인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한국분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학교와의 근접성도 좋아서 Georgetown, George Washington 대학 등 학생이나 D.C.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1~2인 가구 (혹은 영아 포함 2~3인)인 경우 추천합니다.

### 4.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Covid-19 시국으로 인하여 과외 활동의 범위는 매우 좁았습니다. 가을학기에 제한적으로 행사를 재개하였으나, 졸업 학기에 이르러 다시 closed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2년차 파견 학교의 학사 운영은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Georgetown 대학교 McCourt School은 아직 충분히 성숙한 혹은 완성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McCourt School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funding을 많이 확보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학생의 목소리에 대한 responsiveness가 좋고 지속적으로 course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D.C. 지역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서부 (California) 만큼은 아니지만 기후가 매우 온화한 편이고 International Background의 Residents들도 많아 분위기가 상당히 Inclusive한 편입니다. D.C. 자체는 미국 대도시 대부분이 그렇듯이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Georgetown 대학교가 위치한 Georgetown 지역과 인근에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Northern Virginia 지역은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제가 출국할 당시에는 Covid로 인해 F/J 등 일부 비자에 한해서만 Interview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예약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비자 발급시 요구

하는 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이름 오타자, 생년월일 등 포함) 정확히 확인한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Covid 상황으로 학교 수업 외의 다른 활동에는 참여 기회가 제약되었지만 본래 McCourt School은 다양한 과외 활동을 organize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러한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military background가 있으신 경우에는 MPM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미 육군 장교 학생들과도 친분을 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 육군 장교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주한미군 파견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경험, 군 경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